

織物の 歴史的 考察

—우리나라의 綿織物을 中心으로—

李 順 洪*

A Historical Study of Textiles

—With an Emphasis on Korean Cotton Fabrics—

Soon Hong, Lee

<目 次>

- | | |
|-----------------|----------------|
| I. 緒 言 | IV. 木綿傳來說 |
| II. 綿의 諸 名稱 | V. 織機具 및 紡織 現況 |
| III. 織物의 歴史的 背景 | VI. 結 言 |

Abstract

I referred to documents to study the origin and the progressing process of textiles.

Cotton seeds were first imported from China by Mun, Ik Jem at the end of the era of Koryeo, and cotton had several different names such as mok-myen, cho-myen, gil-pae, baek-chep-za, tap-po, ban-ki-wha, dong-yep-po and so on.

Since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people had heard of cloth of superior quality but it was not certain whether it was imported from China or made in our country.

It seems that cotton was not made during that period, white silk, hemp cloth, and ramie fabric were produced. At that time, linen was called cotton by mistake.

After importing cotton seeds from China, all the people began to plant them and made their clothes from them. At the beginning of the Yi Dynasty, the weaving technique was dependent on China. However, the government persuaded farmers to plant them. At that time cotton was used as a means of purchasing instead of money.

Silkworms raising started during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and it was widely spread at the beginning of the Yi Dynasty. In order to encourage sericulture, spinning and weaving instruments were installed in the royal palace and the queen with her court maids demonstrated how to spin and weave. The activity was named "chin-jam-ye."

* 誠信女子大學 副教授

Linen was the representative of all textiles and it was also very popular. The technique of weaving had already been highly developed at the era of Silla.

During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people used "bang-chu-cha" as a weaving instrument. They discovered several new hand machines in the period of the Yi Dynasty: they were instrument of removing seeds, spinning wheel, hemp cloth loom and so on, and we find the remains of them these days.

I. 緒 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衣食住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다.

인간은 생을 영위하면서부터衣服生活을 하였으며, 의복이 존재하면서 먼저衣料가 존재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衣料는 草, 皮, 毛皮, 織布의 순으로 점차 고도화되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服飾制度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綿, 麻, 絹의 각양각색의 직급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직물의 기원과 발달과정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本人은 이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織物史를 考察하고자 하여, 문헌을 主資料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여자가 부지런히 일하여 남자에 뒤지지 않았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고치실과 명주, 베, 모시, 무명 등은 하나도 여자의 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없다. 市井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이나, 논밭에서 밭갈고 씨 뿌리는 일에도 부녀의 노력이 태반이다. 의류재봉과 酒食謀議가 다 여자 아니고서는 되지 아니하는 바이니, 이로써 보건대 조선 산업사상에 실로 여자는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¹⁾ 특히 衣料生産은 주로 여성에 의하여 영위되었으므로 家內手工業의 형태에서 탈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史的 資料를 조사하여 변천과정상의 단계적인 면을 엿볼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

II. 綿의 諸名稱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木綿이 없었는데 麗末에 文益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처음으로 中國

에서 種子를 얻어온 이래로 대개 우리나라에 있게 된 것이니 이전엔 오로지 葛布만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棉花를 木棉이라고들 하나 그 실은 목면이 아니고 바로 草綿인 것이다. 禹貢의 "그 광주리에 담은 貢物은 織貝이다"라고 한 후에 직패는 비단 이름인데 자개무늬를 놓아서 짠 비단이다. 시경에 "이 貝錦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남쪽 오랑캐도 목면이 정하고 좋은 것은 역시 吉貝라고들 한다 하였다. 「廣志」에 상고하니 "오동나무 잎에 끼어 있는 흰털을 모아 가는 실(蠶淹)을 뽑아서 베를 짜낸다" 했고, 裴氏의 「廣州記」에 "남쪽 오랑캐는 누에를 기르지 않고 목면을 따서 솜을 만든다"고 했으며, 「南史」에는 "高昌國이란 나라에 실을처럼 생긴 풀 열매가 난다. 그 이름을 白疊子라고 하는데 베를 만들 수 있다" 하였다. 중국에서는 이 백첩자를 외국물산이라 하며, 다른 털을 보태서 가는 모직을 만든다. 「史記」에 "氍布 皮革이 천필이다"라고 했는데, 裴駰은 "담포는 백첩자다"하고, 顏師古는 "백첩자가 아니다" 했고, 張守節은 "백첩은 목면으로 짠 것이니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桐은 槿과 통하고 일명 斑枝花라고 하니 즉 목면이다. 蜀都賦에 "베 중에 槿葉布도 있다"라는 것이 역시 이것이다. 淹字는 즉 掩字인데 손으로 실을 뽑아낸다는 것이다.

「通鑑」에 "梁武帝는 목면으로 검은 장막을 만들었다"했고, 史炤의 釋文에는 "江南地方에는 목면이 많이 생산되는데 봄 2~3월이 되면 씨를 뿌린다. 싹이 난 후에 한 달이 지나서 세 차례만 김을 매면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익으면 껍질은 네 조각으로 찢어지고 그 속에서 솜과 같이 생긴 흰 덩어리가 제대로 터져나온다. 지방 사람들은 쇠로 만든 씨아로 그 씨를 빼버

(1) 李能和, 朝鮮女俗考, 大洋書籍(1973), p.261.

리고 솜과 같은 것만 모아서 조그마한 대나무 활로 활줄을 잡아 당기면서 뭉실하게 탄다. 모두 일정하게 타진 후에 솜을 말아서 대롱처럼 속이 비게 만든다. 물레(紡車) 가락에 대고 돌리면 저절로 실오리가 뿜혀 나오는데 베틀에 짜서 베를 만든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지금의 綿花라는 것이다. 이로 본다면 중국서도 이 草綿을 더러 목면이라고 했던가 보다. 나의 의견으로는 이 면화란 것이 본래 두 종류가 아닌 듯하다. 남쪽 지방은 기후가 따스한 관계로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커서 목면으로 되지만 중국에 들어가면 기후가 고르지 않은 관계로 해마다 심기 때문에 草綿으로 되었을 것이다.⁽²⁾

위에서 볼 때 木綿은 고장마다 풀이하는 사람의 의도에서 불리어졌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여러 개의 명칭이 모두 棉花를 가리킨 것은 공통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또 揚擘을 살펴보니 이르기, 綿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絲綿이며 누에를 자아서 나오고, 둘째는 木綿이니 交廣에서 나오는데 이름을 班枝花라 한다. 나무는 커서 한아름되며 꽃은 붉은데 山茶와 비슷하고, 열매는 술잔과 같다. 세째는 草綿이니 江南에 이것이 많다. 春二·三月에 씨를 뿌리면 黃花를 結實하는데, 卽 지금의 綿花이다. 丘濬이 말하기를 綿花는 元나라 때에 처음 中國에 들어왔다고 하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木綿은 草綿이지 唐詩에 이른바 “木線의 꽃이 錦江의 서쪽에 피었구나”라고 한 것이 아니다⁽³⁾고 하였다.

여기서도 위 문구와 공통된 뜻의 木綿을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靑莊館全書」를 살펴보면, 棉은 朽와 같다. 廣韻에 棉은 나무 이름이라 하였다. 「南史」에, 高昌國傳에 草棠이 있는데 고치 가운데의 실(絲)과 같아서 가느다란 실(繡)을 만든다. 이름하여(그 실을) 白疊이라 하는데 이것으로 布를 만든다고 한다. 唐 環王傳에, 옛날에 貝草는 꽃을 자아서 布를 만들었는데 거친 것은 貝라 하였고, 精巧한 것은 氈이라고 한다 하였다. 吳錄에

交趾(지명) 安定縣에 大棉이 있었는데 나무는 높고 크다고 하였다.⁽⁴⁾

이와같이 木綿의 명칭은 고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로 불리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술적인 이론이 체계화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다.

Ⅲ. 織物の 歴史的 背景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천연의 섬유를 수확하고 紡錘車를 이용하여 조직하며, 이에 따르는 직물을 생산하던 선사시대의 원시적 양상을 탈피하여 인위적인 섬유생산으로 전환하여 생산이 활발해지고 훌륭한 각종 직물을 생산하는 등 크게 발전하여 갔다.⁽⁵⁾

우리나라의 직조기술은 三韓時代부터 蠶桑의 사실이 해외에까지 알려졌다고 하며, 이미 비단 중에서도 가장 美麗하고 귀한 錦이 생산되어 고구려 때에는 雲布錦, 五色錦, 紫地纈交綿 등의 명칭이 보이고, 신라에서는 景文王代 朝霞錦, 大花魚牙錦, 小花魚錦 등을 唐에 기증한 일까지 있었다 한다. 또 신라 興德王 때 내려진 服飾禁制에서 제급에 따라 錦의 着用을 제한한 규제가 있다.⁽⁶⁾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진 것인지 혹은 中國에서 수입을 하여서 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李能和의 「朝鮮女俗考」에서, 濊는 누에치기를 알았으며 또 무명을 낳았다”(魏志), “濊에는 무명이 있다”(北史), “변진은 폭이 넓은 무명을 짰다”, “진한은 누에치기를 알고 있었다”(魏志), “마한 사람은 농사짓기와 누에치기를 알고 무명을 짜며 진한은 비단을 짰다”(後漢書)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자세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신라는 토지가 기름지고 뽕과 삼이 많았으니 비단과 무명을 짰다(北史). 신라가 사신을 시켜 霞紬, 魚牙紬를 헌조해 왔다(唐, 「冊府元龜」).

신라 유리왕 9년에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육

(2) 민족문화추진회 : 星湖僿說 II, 景仁文化史(1976), p.270.

(3) 芝峰類說, 卷 20, 卉木部

(4) 靑莊館全書 卷五十六, 棉

(5) 리은창, 한국 복식의 역사(고대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78), p.138.

(6) 김용숙, “李朝 後期 妃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아세아여성연구, 제 5집, p.162.

부를 반으로 갈라 두 편을 만든 다음 王女 두 사람에게 部內 여인을 나누어 거느리고 7月 보름 이후 매일 일찍부터 六部의 뜰에 모여 乙夜까지 베짜기를 하게 하였다. 8月 보름에 가서 그 공을 따졌다. 그리고 진 편은 주식을 차리어 이진 편을 내접하게 되는데 가무백희를 다하며 논다. 이를 嘉俳(가위, 팔월 한가위)라고 하였다. 이때 진 편에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아소, 아소(會蘇 會蘇)」하니 그 소리가 애처롭고 고왔다(東京志).⁽⁷⁾

신라에는 二八升, 二十升, 一五升 베가 있었다(「三國史記」車服志). 李能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상도에서 나는 安東布가 지금도 품질이 가장 좋다. 무명은 가늘고 약간 보라빛을 띤 누른 빛의 것이 여름옷에 가장 알맞은 감이다. 대개 경상도는 본디 진한과 신라의 옛 강토였으므로 을야가 되도록 늦게까지 베를 짜는 풍속이 남아 있다.

또 무명실을 자아 옷을 지으면 길한 징조가 나타난다 하여 부인들은 정월 보름날 만든 실을 서로 선물한다⁽⁸⁾고 하였다.

위에서 볼 때 삼국시대 이전부터 織布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당시의 기록의 무명은 木綿이 아니고 麻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뽕과 삼이 많았으니 비단과 무명을 짰다”와 “경상도 안동포가 지금도 품질이 가장 좋다. 무명은 가늘고 약간 보라빛을 띤 누른 빛의 것이 여름옷에 가장 알맞는다”에서 무명은 木綿이 아니고 布임을 증명해 준다.

“고려에는 비단이 적으므로 나라 안이 다 베나 모시로 옷을 지어 입더라”(孫穆, 「계림유사」).

“고려는 그 나라가 스스로 모시와 삼을 심어 가꾸니 사람들은 많이 布衣를 입었다. 絶品을 모시(苧)라고 한다. 희기가 구슬과 같고 폭은 좁았다. 임금과 귀한 신하가 다 이것을 입더라”(徐兢, 「고려도경」), 충렬왕 14년 무자에 가는 베의 헌납을 금하였다. “충렬왕 때 洪子藩이 疏를 올려, 여러 도에서 가는 모시를 거두니 백성이 견

디기 어렵나이다. 마땅히 관비로 있다가 풀려난 자로 하여금 베짜기를 시키어 백성이 힘을 펴게 하시옵소서...(후략)”.

공민왕 4년 을미에 元이 조공으로 무늬 모시를 받던 일을 그만 두었다. 공민왕 때 房士良이 소를 올려 이르기, “우리나라는 모시와 베를 입으면서 상하가 다 오랜동안 만족해 왔사온데...”⁽⁹⁾에서 이때까지는 木綿이 우리나라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 이래의 女工品에 대한 외국인의 기록을 보면, 明나라 一統志에 “조선산 모시(紵布)는 흑백 두 빛의 것이 있다” 하였고, 또 “조선에는 흰 모시가 생산된다”고 하였다. 董越은 조선부 註에서, “조선무명은 삼(麻)으로 짰다. 모시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잘못 전하여진 것이다. 무명은 정하고 가늘기가 고운 縠(縠)과 같다”고 하였고, 淸 一統志에는, “조선에는 무명과 명주가 난다”고 하였다. 和漢「三才圖會」에는, “表紵는 중국과 조선에서 나니 무늬 없는 비단과 같고 두텁고 질기며 또 무늬 있는 흰 명주도 나나 다 광택은 없다”고 하였다. 이런 것들은 모두 조선에서 특산되는 女工品인 베, 모시 및 명주를 이룬 것이요 무명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¹⁰⁾ 여기에서도 무명은 木綿이 아니고 베모시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1. 綿織物

고려말에 文益漸이 綿種을 중국에서 들여온 후 각 지방에 전파되어 점차로 국민이 綿布를 衣料로 삼게 되었다.

綿種이 晉陽村에서 처음 재배되어 온 국민이 상하게 급에 이르기에는 時日을 表하였으니 고려말기의 綿業은 그 재배과정에 있어서나 직조과정에 있어서 아직 시작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綿業이 성립하여 본 淸도에 오른 것은 朝鮮初였다. 원래 我國綿種이 中國에서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製法技術도 완전히 중국에 의존했지만 기술적으로는 低位에 처하였던 것이다.⁽¹¹⁾ 그 후 棉花 재배와 綿布 生産을 권장하여, 목면은 온

(7) 京都雜志, 卷二, 中秋, p.80.

(8) 柳得恭, 東國歲時記, 大洋書籍(서울), 1972.

(9) 李能和, 전계서, p.262~3.

(10) 앞 글, p.263.

(11) 李文垣, “李朝時代의 衣料 生産에 관한 考察”, 아세아여성연구, 제 1호, p.38.

나라에 거의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심지 않는 지방이 많은데 지방에 따라 풍토나 기후가 같지 않아서 심지 못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황해도 黃州와 鳳山, 충청도의 文義와 沃川 등지는 목면이 토지에 알맞아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경기 부근에 이르러서는 차츰 늘어나지 않는다. 내가 바닷가에 살면서 경험해 보니 水原에 속한 雙阜라는 면은 한 집도 심는 이가 없으니 어찌 40~50리 사이에 토지가 이처럼 다를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牛鳴이란 곳도 바닷가의 한 구석진 지대로서 역시 목면은 심지 않는다. 그 실은 풍속 습관이 고쳐지지 않은 관계이지 목면의 성질이 지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아니다. 사방을 두루 살펴보면 산골이건 바닷가이건 목면이 생산되지 않으니 이는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호남지방에는 蘇麻가 없고, 다만 茱萸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켜게 된다. 南瓜(과)라는 호박이 난 지도 또한 거의 백 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 호남지방에는 미치지 못했으니 목면이 생산되지 않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달걀로 닭을 생산시키는 것이지만 암탉이 둥우리 속에서 품지 않으면 닭을 만들 수 없고 누에가 실을 만드는 것이지만 뽕을 먹이지 않으면 실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달걀을 품게 만들지 않고 또 누에도 먹이지 않으면서 닭과 실이 절로 이루어지기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옳겠는가? 이 목면을 혹 시험삼아 심어보는 자도 비록 있기는 하나 결국은 풍속과 습관에 따라 게으름만 피우고 제대로 알맞게 가꾸지 않는다. 나중에 와서 잘 되지 않으면, 다만 토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 어찌 참 그럴 이치가 있겠는가? 나는 이런 사실을 직접 듣고 본 결과, 자기 머리에 젖은 습관은 고질처럼 되고 가꾸는 손은 생소해서 끝내 제대로 가꾸는 방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北道에도 목면을 심지 않으나 이 북도란 일대는 모두 바다가 가까워서 따뜻한 기후가 畿湖지방 산 가까이 있는 고을보다도 도리어 낫다. 만약 목면을 심는 방법만 깨닫는다면 반드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삼베 옷과 가죽 옷을 입는데 습관이 되어 힘껏 생산해 보려

고 하지 않는다. 이들을 잘 달래고 지도하여 목면 심기에 풍속이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黃始 文益漸과 같은 공이 있게 될 것이다.⁽¹²⁾라 하여 棉花를 널리 전파하려 하였다.

성종대의 역관인 曷伸에 의하면, 목면은 그 크기가 술잔 만하다. 토인들이 이것으로 천을 만드는데 吉貝라고 부른다. 松江 사람이 鳥泥涇에서 심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씨아와 솜타는 활(推弓) 따위의 연장이 없었으므로 손으로 씨를 뽑고 활줄을 상 사이에 설치해 놓고 그것으로 타서 솜을 뽑는데 그 공이 매우 고생스러웠다. 원나라 초에 黃道婆라는 노파가 崖州에서 와서 솜을 틀고 무명을 짜는 연장을 가지고 縞(紗)을 섞어서 配色을 하여 짜기도 하고, 가로 세로 무늬를 놓기까지 하는데 각각 방법이 있었다. 짜서 옷과 이불, 띠, 수건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방법을 다 배우자 서로 다투어 만들어서 다른 고을에 팔았다. 노파가 죽자 사람들이 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함께 장사지내고 또 사당을 지어 제사하였다. 지금 北京, 遼陽 등지에서 남녀가 일상입는 옷이 다 이 무명이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무명이 없어 다만 삼, 모시, 명주실로만 천을 만들었는데 고려말에 진주사람 문익점이 일찌기 중국에 갔다가 木綿의 씨를 구하여 주머니 속에 감추어 넣고 아울러 씨 뽑는 기구와 실짚는 기구를 가지고 왔다. 나라 사람들이 다투어 그 방법을 전하여 1백년도 못되어 온 나라 안에 퍼져서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대체로 다 이 무명옷을 입었다. 또 그것을 논으로 바꾸기도 하고 쌓아두기도 하는 일이 세상에 널리 행하여졌는데 삼베에 비하여 갑절이나 많이 쓰였었다. 처음에는 關越 등 아주 남쪽 지방에서 났으나 온 천하에 널리 퍼져 사람을 이롭게 했다. 전에는 없었던 이런 물건이 지금 동방에 성하게 된 것은 익점의 공이 황노파에 못지 아니하며 나라에서 그 자손을 기용했다고 했다. 옛날에는 그 나라의 富를 물으면 말의 수효로 대답하였고, 중국사람은 銅錢이나 금·은으로써 빈부를 비교하였지만 우리 동방에는 금·은이 나지 않으므로 우리 조정에서는 錢法을 시행하지 않고 다만 무명으로 화폐를 삼았다. 무명 35자가 한 필이고, 50필이 한 동인데 쌓아 둔 것이 많아야 1천 동

(12) 星湖僿說 卷六 萬物門, p.401

에 불과하였다.⁽¹³⁾

이상에서 보면 무명의 가치가 富의 척도로서 금·은·동전보다 더 상위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또한 점차 무명의 질적인 하락으로 인해 그것을 시정하고자 종종 말경에 전전공공 노력한 기색을 엿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나쁜 무명을 통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중간에 와서 혹은 금지하기도 하고 혹은 안하기도 하다가 근년에 와서는 전적으로 금지하지를 않아서 날로 더욱 나빠져갔다. 한 필의 무명이 겨우 10자 남짓해지고 심지어는 半幅을 쪼개어 한 필로 만든 것도 있으니 이와 같이 물가를 올리고 뛰게 함이 어찌 괴이하지 않겠느냐 화폐를 함부로 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을 것이다. 가령 정미년 무렵에 한성부가 의논하여 그것을 금지하려 했으나 때마침 기근이 들어 商界에 폐를 끼칠까 두려워 간간 그 통용을 허가하였다. 그랬더니 민가에서 무명의 실을 풀어 조금 가는 무명으로 고쳐 짜서 팔아 이익을 많이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쁜 무명으로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아니 되었다. 만약 이 기회에 반년 동안을 한정하고 그 뒤에 법을 세워 엄금하면 뒷날 무명을 짜는 자는 반드시 예전의 나쁜 무명짜기를 본받지 않을 것이니 그 폐단을 거의 고치게 될 것이다.⁽¹⁴⁾

2. 絹織物

우리나라 양잠에 대한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오래지만 朝鮮 初期에 이르러 비로소 양잠법을 광범위하게 전파시켰다.

고려 때 崔滋의 三都賦에,

“계림땅 좋은 고장에 뽕나무는 크고 커서 봄이면 누에 치니 한 집에 일만 발이요, 여름이면 실을 내니 한 손가락에 백 가닥이라. 뽑으면서 얇으면서 명주를 짜내니라. 번개같은 북, 바람같은 마디 손을 빼니 벼락이라. 생명수 무늬줄과 겹실을 엮은 양이 내인듯 안개인듯 부드럽고 눈인듯 서리인듯 희도다. 퍼령, 노랑, 빨강, 파랑 물을 들여 비단을 만들며 수를 놓아, 높으신 네 옷을 짓고 우리 옷도 지어 입세.”

라고 하였다. 이 노래로써도 嶺南에 양잠이 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

朝鮮朝의 記錄을 보면,

“太宗 11년 12월에 外戚事에 대해 論議하는데 群臣이 말하기를, 衣食은 가장 人生의 소중한 것 인즉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없는 일이다. 古人의 말에 后妃가 勤儉하여 后夫人이 친히 누에를 친 일이 있는데 지금은 宮中の 侍女까지도 다 飽食을 하면서 하는 일은 없다. 王曰, 내 의복도 다 買入하여 바치는데 앞으로는 收斂으로 麻를 걷어들이게 하여 侍女에게 맡겨 紡績하게 할 것이니 闕內에 갖추도록 하라 하니 群臣이 다 王의 분부에 따를 뿐이었다.”⁽¹⁶⁾

이는 織布生産을 권장할 뿐 아니라 闕內에도 紡織시설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고, 外國에서의 수입을 금하고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함이었다.

또 成宗 8년에는, 양잠에 대한 권장책으로서 宮中에서는 后妃의 親蠶禮가 있었으며 매년 3월이면 内外의 命婦를 인솔하여 昌德宮 後苑의 桑壇에서 採桑하는 禮를 행하여 百姓에게 친히 垂範한 것은 비록 形式的인 일에 불과하였지만 양잠을 처국적으로 重視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¹⁷⁾

“成宗 24년 봄 3월에 왕비가 후원 採桑壇에 남시어 王世子嬪과 内外命婦를 거느리고 친잠례를 행하고 採桑女 및 잠모(蠶母), 綿母를 내리었다…(후략)”

經濟六典에 따르면, “國初에 種桑法을 만들어 大戶는 三百 본, 中戶는 二百 본, 下戶는 一百 본이니 뽕을 가꾸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관할 수령을 파징한다”고 했다.

端宗 2년 9월에 戶曹가 啓를 올리어, “청컨대 각 읍 도회관으로 하여금 蠶種을 받아 여러 고을에 나누어 주게 하여 양잠을 시키게 그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계고하여 관할 수령을 혹은 상주고 혹은 벌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이에 따랐다.

「경국대전」 戶典에 “여러 도가 반드시 뽕밭 있는 곳에 都會蠶室을 두고 그 사정을 기록하여 本

(13) 大東野乘, 第3卷, p.384

(14) 大東野乘, 第4卷, p.496.

(15) 李能和, 전계서, p.267.

(16) 太宗實錄, 卷二十三

(17) 李文垣(1962), p.37.

曹, 本道, 本邑에 비치하고 누에를 친 다음 고치실을 뽑아 상납하여야 한다”고 했다.⁽¹⁸⁾

仁宗의 御製에 부녀자의 직조와 재봉의 광경을 읊은 시조와 顯宗이 친히 耕蠶圖를 그린 사실, 英祖가 御製耕織圖에 하신 말씀 등 당시의 경감 경직을 장려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明宗 4년 이수광이 말하기를 “槐院의 正字 鄭礪이 唐絲로 만든 交織布를 着服하고 鍾街에 이르렀다가 憲府의 亂을 禁하는 官吏(禁亂吏)에게 변을 당하였는데 그것은 대개 交織布가 細密하여 만들기 어려우므로 宰相 외에 堂下官은 입을 수 없었던 고로 나라법에 의하여 금한 바이다. 礪은 順明의 아들이고 어린 나이에 이름있는 관리였으나 禁吏가 끝내 용서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¹⁹⁾

英宗 22년 燕行 무역에서 紋緞의 무역을 禁하였다. 下敎를 이르기, “土地가 財貨를 生産하는 것은 有限하되 軍國의 쓰는 費用은 매우 빈다히 많도다. 한번 사신이 가는 비용은 礦銀 10만인데 王公鄉, 大夫, 匹庶가 요구하고 바라는 바의 綾羅로서 充當하니 窮村僻野까지도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도다.”⁽²⁰⁾

英宗 23년 下敎에 이르기, “슬프도다 오늘날 紋緞을 禁하는 것은 내가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던 바이다. 이미 엄금토록 수를 내렸으니 비록 一匹의 紋緞이라 할지라도 禁한 것을 어기는 일이다...”.

同王 28년 備邊司가 啓를 올려 말하기를, “義州 驅馬 사람 洪金은 지니고 있던 바 幅包 가운데 紋緞이 있었는데 명주로 다시 짜서 남색주단이 합하여 10필이었다...”⁽²¹⁾

英宗 34년 “髻髻와 紅袍는 그 폐단의 지나침을 다 없였으나 그 더욱 細細한 일들은 그러하도다. 이렇듯 禁制節目 등으로 說定하지 아니하고 禁하는 것은, 알아 듣게 타이르고자 함이로다. 마땅히 上紋緞에서부터 于先하여 이미 이를 禁하고 織造機도 역시 철거하였는데 頒囊之緞은 오히려

그 무늬를 자랑하고 의룡동에는 역시 기이하고 교묘한 解紋이 있으니 이는 어찌 紋緞을 禁하고 織造機를 철거한 뜻이겠는가? 지금까지 지난 일이나 頒囊之緞 역시 그 무늬를 제거하고 의룡동에서는 法服·禮服 외에 鄉織은 아울러 그 무늬를 禁하며 기이하고 교묘한 解紋은 일체 엄금한다. 公共의 織造機 외에 私有의 직조기이면 철거하고 이후에 만약 解紋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폐단이 있다면 則句管 中官은 마땅히 書를 制하여 有違之律로 施行할 것이로다”⁽²²⁾고 하였음은 국초에는 조정에서 경감, 경직을 장려하였으나 국말에는 紋緞을 禁한 것으로 보아 점차 錦纈緞子의 사치가 범람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麻織物

삼국시대의 布織物은 역시 선사시대의 포직물의 기초가 되어 점차 크게 발달해 朝鮮 初期의 衣料生産의 대표적이고 庶民的인 것은 무엇보다 麻布였다. 우리나라 麻織에 대한 기술은 이미 신라시대에 크게 발달되어 三十升布, 四十升布 같은 귀중한 極細布가 직조되었다.⁽²³⁾

조선에서 나는 베 중에도 함경도 六鎭의 것이 가장 좋으니 北布라고 한다. 가장 가는 것은 한 필을 바리(鉢) 안에 넣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속칭 鉢內布라고도 한다. 경상도 각 곳에서도 베가 나니, 이름을 嶺布라고 한다. 安東에서 나는 것을 安東布라고 하니, 여름 옷에 알맞는 감이다. 강원도에서 나는 것은 江布라 하고 또는 常布라고도 하여 바닥이 거칠고 값도 헐하여 많이 常服에 쓰인다. 따라서 농부들도 삼을 많이 심는다. 이 삼베는 다 여자의 工力으로 된 물건이다. 正祖 때 洪良浩의 「耳溪集」 藝麻條에 北地 六鎭의 풍속을 읊은 글이 적혀 있다. 이르기, “三月에 심은 삼을 七月에 거두어 五月에 실을 내어 열흘 남짓 행귀서 부드러운 손을 눌러가는 베를 짜내니 매미 날개인듯 엷어서 주먹 안에 드

(18) 李能和(1973), pp.267~268.

(19) 增補文獻備考, 卷 131, 刑考 5, 禁制 1.

(20) 秋官志, 第四篇, 掌禁部, 申章, 奢侈.

(21) 상계서.

(22) 상계서.

(23)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32年.

는데 아깝게도 남쪽 상인에 다 넘겨주고 몸에 다간 거친 베로 몽당치마 두르도다”(24)라고 있다. 이상에서 ‘麻布 한 필이 바리 안에 넣을 수 있고 또 매미인들 엮어 주먹 안에 드는데’란 문구는 麻織에 대한 기술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 麻織業이 발달된 것은 產地가 전국적으로 適地였다는데 커다란 원인이 되어 있었지만 紡績에 기술적으로 蒸石法을 썼다는데 또한 由因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 부녀간에 상호 협조하는 의미에서 ‘들네삼’이란 共同績麻의 풍습이 있었다. 이 풍습은 中部 이남지방에서 주로 행하여졌으며 상호간에 태만을 경계하고 능률을 증진시킴에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생산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것이다. 신라시대에 嘉俳와 會蘇曲이 생긴 遺風으로서 여성들이 주간에는 雜役に 종사하고 야간에도 自活을 위하여 공동생산을 한 유일한 형태인 것이다.(25)

4. 苧織物

조선 모시에 한산산이 가장 좋으니 한산모시라고 한다. 오직 봄·여름의 옷감이다. 장성, 정읍에서도 모시가 나지만 그 원료는 다 한산군에서 실어다가 女工을 더하여 천으로 만든다. 「高麗史」를 상고하면 忠烈王 때 洪子藩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여러 도가 苧布를 납세로 거두어 들여 백성이 심히 고통을 받사오니...” 운운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건대 고려시대에는 여러 도에서 다 모시를 생산한 것이 분명하다.(26)

苧布는 조선 衣料生産 중에서 極貴한 것으로서 주로 상류계급에서 需要되었으며 연산군 때는 百官에 命하여 苧絲衣를 備着케 하였다. 이와 같이 官服에 苧絲衣를 사용케 함에는 반드시 着色이 필요하였으므로 赴京하는 綾羅匠을 수행시켜 苧絲에 大紅草綠 등 諸色の 염색법을 배우게 하였던 것이다.

朝鮮苧布의 기술은 발달되어 중국산을 능가하는 고급품이 생산되었으므로 중국인인 徐兢은 我國産을 ‘潔白如玉’이라고 격찬을 하였다. 이와 같이 고급 저포가 생산되어 국내수요가 증가되고

또한 官營貿易의 대상물자로서 極貴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 원인을 보면,

첫째는 저포산지가 全羅, 忠淸道의 一部에 집중되었고 慶南, 江原, 黃海道에는 극소 지역에 산재되었다. 즉 산지가 협소하였다는 것이 공급의 부족을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둘째는 저포가 대외무역의 주요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白苧布의 징수가 과중되었었다. 즉 당시 무역은 官營貿易이었으므로 국가 수입상 과중한 貢租賦課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세째는 당시 서울의 富商大賈가 이 苧布를 遣明使臣의 行欠에 暗寄한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27)

Ⅳ. 木綿傳來說

文益漸은 字가 日新이고, 어렸을 때 이름은 益瞻이었다. 晉州 江城縣 사람이다. 高麗 恭愍王 9년 元나라 順帝 至正 20년 庚子에 과거에 급제하여 鄭夢周와 더불어 같은 榜에 붙여졌다. 高麗 末期에 儒學이 廢하고 釋敎(佛敎)가 행함을 보고서 분개하여 絕學(배어난 學問이라는 뜻으로서 여기는 儒敎)을 계승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正道를 밝히고 異端을 물리쳐서 사람들을 가르치되 반드시 忠孝의 行實과 性理의 學問으로 하였다. 24년 甲辰에 左司 議大夫로서 使臣을 奉行하여 元나라에 들어가서 崔濡를 만났다. 그는 恭愍王을 順帝에게 하리놀아(헐뜯어 일러바침) 德興王을 옹립하여 세우고 자기는 宰相이 되고자 하였으니 대개 덕흥군은 이때에 上使로 있었다. 崔濡는 또한 益漸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副使 文益漸은 본 바탕이 剛直하여 必是 命에 따르지 않을 것이오니 원컨대 陛下께서 이를 막아주소서” 하니 順帝가 益漸을 불러 이러한 사실을 이르면서 말하기를, “고려의 王이 荒淫하니 朕은 王을 廢하고 덕흥군을 세우고자 하는데 너는 어찌할 것인가?” 함에 益漸이 對答하여 가로되 “君臣의 義理는 天地에 匹할 바가 없으니 신은 비록 무례할지라도 감히 命을 받들

(24) 李能和(1973), p.272.

(25) 李文垣(1962), p.41.

(26) 李能和(1973), p.273.

(27) 李文垣(1962), p.42.

어 아침하지 못하겠나이다”라 하니 順帝가 怒하여 말하기를 “朕의 뜻이 이미 定해졌는데 陪臣(天子에 대한 諸侯의 臣下)이 命을 어기니 罪가 죽음에 當하도다” 하였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변호해 주어서 드디어 南荒에 귀양보내었다. 益漸은 상인 중에서 東쪽에서 온 사람에 부탁하여 崔濡의 일을 공민왕에게 비밀리에 알렸다. 26年 丙午 9月 용서받아 돌아오다가 길 옆을 보니 밭 가운데 풀이 있는데 흰꽃이 솜털과 같았다. 從者 金龍摘을 시켜 取하여 看守하자 밭을 지키는 노파가 말하기를, “이 풀은 綿이외다. 外國人이 移種함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여 적발되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문익점은 드디어 3송이 꽃을 붓뚜껍에 몰래 숨겨서 丹城田畝로 돌아왔다. 2월에 처음 씨 하나를 꽃밭에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았고, 3월에 또 씨 하나를 심으니 말라 죽었으며, 4월에 씨 하나를 심으니 가을에 흰꽃을 피웠다. 이렇게 3년만에 드디어 크게 번성하여 피졌으나 다만 씨를 제거하고 여기서 실을 뽑아내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손톱으로 씨를 뽑아내고 손으로 실을 자아내었다. 居亡何라는 上國(中國)의 중이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다니다가 北道를 지나 晉州 鄭天翼의 집에 이르렀다. 天翼은 바로 益漸의 장인이다. 중이 들밭의 草綿을 보자 홀연히 어지러워하며 눈물을 흘리거늘 天翼이 이를 이상히 여겨서 물어보니 중이 말하기를, “故國의 물건이 언제 여기에 옮겨와 이와 같이 번성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유량한 세월이 오래 됨에 눈물이 흐르오”라 하였다. 중이 드디어 攪車와 紡車를 만들고 織造하여 만드는 일을 가르쳐주니 이때에 草綿의 이용이 한 나라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左司議侍學으로서 上書를 올려 하는 방도를 極論하였다. 諫官 李躄 등이 상서하여 私田을 復舊함이 不可함을 간쟁하며 문익점은 이때에 벼슬이 左正言이었는데 李穡·李琳·禹玄寶와 더불어 病을 稱하고 署名하지 아니하였다. 大司憲 趙浚이 아뢰어 말하기를 “익점은 賢良科로서 諫官에 徵拜되어 정성을 다하여 治道를 베풀어 퍼서 聖明을 보좌하여야 하거늘 오히려 宰臣에 依賴하고 附屬하여 아침만을 일삼으니 淸컨대 罷職하

소서” 하니 教하여 “可하다” 하시었다. 익점은 물러나와 지리산 중에 숨어 스스로 號를 思隱이라 하고 生徒를 教授하였다. 어머니의 喪을 당하여 墓에서 3年을 居할 때에 倭寇 陸梁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모두 도망해 숨었는데도 익점이 상복과 腰經을 벗지 아니하고 어느 때와 같이 음식을 올리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지라 倭寇도 역시 그 정성스러운 孝誠에 감동하여 害를 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几筵을 보존할 수 있었다. 후에 스스로 號를 三憂居士라 하였는데 대개 나라의 不振을 걱정하고, 聖學의 泯滅을 걱정하고, 자기의 道가 서지 않음을 걱정한다는 뜻에서였다.⁽²⁸⁾

이와 같은 내용의 傳來說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사실이 더욱 확실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太宗 10年 4월에 司諫院에서는 時務八項目을 가지고 진정을 올리니 議政府에서 들은 바를 議論하였다. 그 중 六項目만을 들어 사람이 사는데 衣食에 의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我國은 이미 명주베는 알고 있었으나 木綿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諫議大夫 문익점이 使臣으로 中原에 들어가 綿花 種子를 얻어가지고 돌아오니 백성에게 혜택이 자못 컸다. 鄉土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木帛으로 저고리·치마 등을 만들어 입으니 그 功은 백성들에 있어 嘉賞할 만하겠다. 나라에서는 褒賞六典을 올리고 爵秩을 追崇하여 淸송하였다. 돌이켜 볼 때 하나의 前者로 有功한 자에게도 祠堂을 지어 주었거늘 하물며 一國의 유공자를 어찌 그냥 있으랴. 원컨대 故鄉에 내려가 사당을 세우고 祭奠을 주어 제사를 봉사하게 하여 議朝의 덕을 仰慕하고 공을 보답하는 뜻을 나타냄이 곧 褒賞하고, 사당을 세워 제전을 베풀어 제사지내게 할 것을 진정하니(후략)”⁽²⁹⁾, 朝鮮王朝에 와서도 代代로 계속하여 文益漸의 木綿 傳來의 공을 찬양하여 그 후손에게도 계속 祿을 주고 포상하자는 의견이 분분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哲宗 3年 李陸에 의하면, 棉花는 호남과 영남에 가장 성했고, 八道에 심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 혜택을 힘입고 나라 씩씩이도 넉넉

(28) 高麗史, 列傳 卷 24.

(29) 太宗實錄, 卷十九

하여집이 文公의 공이었다. 국조에서는 대대로 그 자손에게 녹을 주어 포상했다.⁽³⁰⁾

이리하여 棉花를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들여온 것임은 틀림없으나 「朝鮮女俗考」에서는 鄭天翼을 의할아버지라 한 점과 목면 씨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점이 다른 문헌에 기록된 것과 틀리나 다수의 문헌에 기록된 鄭天翼이 장인이며, 목면씨를 붓뚜껍에 넣어온 것이 옳은 說이라 생각된다.

V. 織機具 및 紡織 現況

1. 織機具

삼국시대의 직조에 있어서는 그 초에는 紡錘車에 의하였을 것이다. 신라와 가야의 4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여러 고분에서 土製 방추차와 陶製 방추차가 여러 개 발굴되었으며 그 형태는 算盤珠形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추차의 출토로 보아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4세기 내지 5세기경까지도 방추차에 의한 직조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나 직조방법의 존속 여부가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을 것이나, 점차 직기구를 사용하는 직물생산으로 전환했을 것이다.

선사시대에 이미 포직물계의 麻布, 綿布, 縑布 등과 견직물계의 絹, 綿, 모직물계의 麤 등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삼국시대에는 이밖에 紬, 綾紗, 羅 등 호화찬란한 직물을 생산하기에 이르러 직물의 종류가 증가되고 또 한편 平組織과 紋樣織에도 직조기법이 발전되었다. 발전된 직물생산과 진전된 직조방법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방추차에 의한 직조가 아니라 織機具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직기구가 어떠한지는 유물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여러 가지 생활도구와 복식자료의 그 기본적인 형태가 이 시기에 형성되어 그것이 근세 조선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고분기의 직기구의 유물이 출토되는 예로 보아 傾斜形 직기구, 곧 베틀로서 오늘날에도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베틀이었을 것이다. 이 베틀은 바디(篋)와 잉아(綜統)를 걸어 布織과 絹

織을 평조직으로 생산하고 또 錦과 羅 등은 單式綜統을 複式綜統으로 바꾸어 문양직을 생산하였으리라 추정된다.⁽³¹⁾

「星湖僿說」萬物門 蠶綿具에 보면, “내가 「三才圖會」를 보니 누에치는 따위를 모두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했는데 기계가 교묘하고 세밀함에 따라 공력이 갑절이나 줄어들게 되었으니 특히 불편한 것이 있고 또 기계에 대한 이름이 여러가지라 몰라서는 안 될 점이 있는 까닭에 대충 뽑아서 기록해 본다. 蠶箔이란 것은 누에를 담은 기구로서 각 상자에 담아 층으로 된 시렁에 벌여두는 것이고, 蠶簇이란 것은 누에가 고치를 짓는 기구로서 만듭새가 촘촘하기도 하고, 엇비슷하기도 한 것이 그물처럼 되어 있는데 누에가 늙으면 솔섬을 잠족 위에 올려놓고 한 구멍에 누에 한 마리씩 들어가도록 한다.

왕이(軋車)란 것은 고치를 켜는 물레인데 동이(盆) 속에서 켜진 실이 바로 왕이에 감겨져 실빛이 더욱 윤이 난다. 字彙에 상고하니 두레박(繫)은 음이 계인데 두레박 끝에 쓰이는 나무인 것이며, 풀샘대(糾綜)란 것은 자그마한 방망이를 실 끝에 매어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빙빙도는 모양이 흡사 북치는 방망이처럼 된다. 그것은 지금 세속에서 이르는 가락(鐵筵)이란 것인데 위는 갈고리처럼 아래는 방망이처럼 만든다. 이것은 고치 중에 번데기가 나고 나비가 나버린 것과 쌍번데기가 들어 있는 고치만 가려서 물에 삶아 솜으로 만든 다음 손으로 솜을 늘여서 실을 뽑아내는 것인데 명칭을 糾筵이라고도 한다. 자새(絲纒)란 것은 실감는 기구다. 지금 풍속에 정월 보름날 어린아이들이 연놀이할 때에 반드시 이 자새를 쓰게 되는데 혹 말고삐(緇)라 하기도 하고, 혹 실패(角間)라 하기도 한다. 씨아(攪車)란 것은 지금 목화 씨를 빼는 기구가 즉 그것인데 바퀴 끝에 달린 굵은 자루는 이름을 씨아손(掉拐)이라 한다. 이미 씨를 빼 목화는 활로 타서 수숫대 끝줄기로 마는데 이는 이름을 말대(捲筵)라 하여 물레(紡車)가 락은 줄을 따라 빙빙도는데 이는 실뿔(筵維)이라는 것이다. 물레를 발로 돌리면서 왼손으로 솜통을 잡고 실뿔 위에 연이어 놓은 다음 오른손으로는 끌어 당기면서 실

(30) 大東野乘, 第6卷, p.132.

(31) 리은창, 한국복식의 역사(고대편), 1978. p.141.

을 뽑고 왼손으로는 고르게 비벼준다. 많이 뽑는 경우엔 둘이 아울러 하루에 세 툇씩 뽑는데 모두 질긴 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물레는 곧 文益漸의 장인 鄭天翼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물레 하나에 실툇도 하나로 되었으며 사용함에 있어서는 한 사람만이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쥐고 돌리면서 왼손으로 실을 뽑아 가락에 감게 되어 있는데 회전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중국 물레와 비교하면 일을 감절할 수 있으니 또한 묘하게 만들어졌다 하겠다.⁽³²⁾

2. 紡織 現況

본 節에서는 삼베(麻織物), 무명베(綿織物), 명주(絹織物) 및 모시(苧布)의 紡績過程과 織布過程에 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³³⁾

1. 紡績過程

1) 삼베·모시의 방적과정

- ① 작업과정 : 톱질작업→짜기작업→삼기작업
- ② 작업용구

작업과정	톱질작업	짜기작업	삼기작업
작업용구	· 톱(圖 1) · 도마 · 물그릇 · 나무메	· 不要	· 전지(2 個)(圖 2) · 톱 · 도마 · 물그릇 · 광주리

③ 작업 개관

가) 톱질(削皮)작업

精選된 한 疋分の 原麻(태모시) 한 단(一束) 또는 모시 풀 한 단을 충분히 물에 축인 다음 아래와 같은 작업이 진행된다.

① 작업자는 원마를 한 줌(根部一把三指程度)씩 왼손으로 잡아 그 根部를 石臺 위에 놓고, 그 根部의 단단한 부분을 바른 손에 잡은 나무메로 알맞게 두들겨서 부들부들하게 만든다.

② 원마를 根部로부터 上部까지 잘 펴서 뻗혀 놓고 질뒹개로 덮어 적당한 濕氣를 보존시킨다.

③ 원마를 一本씩 왼손으로 그 중앙부를 잡아 도마 위에 덮어 놓으면서 바른손에 잡은 톱날로

원마 껍질을 가볍게 누르고 그 表皮가 벗겨지도록 왼손으로 잡은 원마를 잡아당긴다. 그리고 원마를 돌려서 거꾸로 잡아 위와 같은 동작으로 나머지 部分의 表皮를 벗겨낸다.

나) 짜기(細割)작업

톱질된 원마 한 줌은 10가래로 등분되어 다음과 같은 동작으로 各各 細割된다. 麻·苧는 각각 다소 相異한 동작으로 작업이 진행되므로 이를 구분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삼베의 경우—

① 작업자는 表皮가 削奪된 한 가래의 원마의 根部를 왼손 엄지에 휘감아 쥐고 그 上部를 작업자의 前面으로 적당히 드리운다.

② 작업자는 왼손의 第二, 三, 四指의 끝과 바른손 엄지 손톱을 利用하여 세로 4~6cm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왼손 第二, 三, 四指의 第一節 部分까지 挿入한다. 이때 그 원마의 조각수는 원마의 넓이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

③ 그리하여 바른손 第二, 三, 四指를 왼손가락과 동일한 방향으로 挿入하여 右便으로 벌리면서 원마의 上部까지 細割하는데 원마가 길 때는 그 中央部를 바른편 무릎에 걸면서 짜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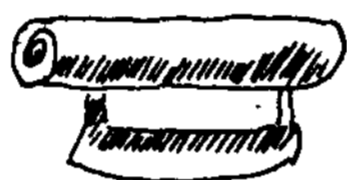
④ 위와 같은 動作으로 왼손 엄지에 휘감긴 한 가래의 원마의 上部細割이 끝나면 그 根部의 未細割部分을 두 손으로 맞잡아 쪼갬다.

⑤ 細割된 원마 한 가래를 2等分하여 그 根部를 묶어 두 모습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一疋分の 原麻 한 단은 10줌, 100가래, 200모습이 되며 그것은 보통 짚으로 그 根部를 엮어 햇볕에 말리면서 漂白도 兼하는데 이것을 삼 한 떼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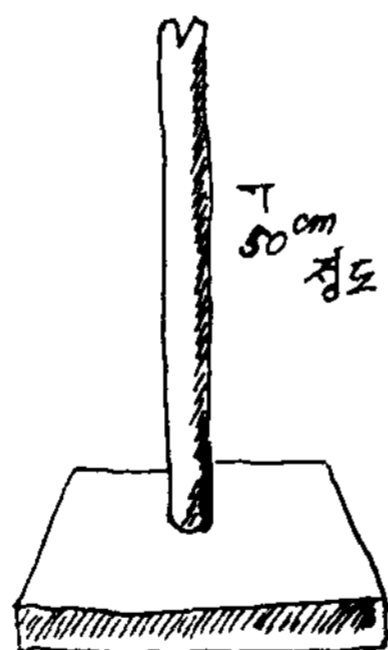
—태모시의 경우—

① 태모시는 細割作業에 시간을 要하므로 그의 乾燥를 防止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한 가래의 태모시를 왼손 엄지에 그 上部까지 완전히 휘감는다.

② 작업자는 왼손에 휘감긴 태모시를 바른손으로 一本만 풀어서 앞니 사이에 넣어 적당한 나비로 한 올씩 구멍을 뚫은 다음 바른손 第二指를 그 구멍에 넣어 삼베의 경우와 同一한 方法으로 이를 細割한다.



[圖 1] 톱



[圖 2] 전지

(32) 星湖僿說, 卷六四, 萬物門, 蠶綿具, p.25.

(33) 권병탁, “이조 말기의 농촌직물 수공업 연구”, 경북대학교, 1970.

다) 삼기(連絲)작업

작업자는 물에 충분히 축여진 삼이나 태모시를 먼저 왼손에 휘감아 쥐고 그 根部의 부적당한 부분을 도마 위에 놓고 오른손에 잡은 톱으로 깨끗이 앓아낸다. 그리고 삼이나 태모시를 한 가래씩 전지에 걸쳐 놓으면 삼기작업의 基本動作이 시작된다. 삼기작업은 麻·苧의 紡績過程 중 가장 基本的이며 시간을 要하는 부분이므로 먼저 한 울을 삼아내는 기본동작을 紹介한다.

㉑ 작업자는 왼손으로 삼꼬리(태모시꼬리) 20cm 부분을 입으로 가져가서, 앞니와 오른손 엄지의 첫 손가락을 利用하여 Y型으로 가지를 낸다. 이것을 安東, 韓山地方에서는 「매를 탄다」고 한다.

㉒ 이어서 오른손으로는 한 울의 삼 根部를 잡아 입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뽀족하게 한다.

㉓ 왼손에 잡은 Y型 삼 오라기를 오른편 무릎 위로 가져 가면서 왼손에 잡은 삼 根部의 뽀족한 끝과 Y型 작은 가지를 나란히 하여 왼손 엄지와 첫 손가락으로 가볍게 비비어 오른 무릎 위에 놓는다(圖 3 참조). 이때 각 오라기의 끝은 침이 알맞게 묻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圖 3] 뽑앗기

㉔ 작업자는 오른손 바닥으로 실오라기의 끝을 끌어 모으면서 앞으로 당겨 비볐다가 다시 밖으로 내밀며 비빈다. 그렇게 하면 두 울의 실은 감쪽같이 이어진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安東布라든지 모시를 삼는 方法이며 보통 삼삼기와 약간의 差異가 있으며, 이것을 安東, 韓山地方에서는 「뽑삼는다」고 한다.

㉕ 뽑삼아진 麻·苧는 무릎 위에 놓은채 무릎을 바탕으로 하여 오른손바닥과 팔로 2~3회 밖으로 내밀면서 비비어 꼬이게 한 다음 왼손으로 작업자는 왼편에 있는 광주리에 圓形을 그리며 담는다.

이러한 一連의 動作에 의해서 삼아 담겨진 광주리의 실은 정하게 말려서 한 묶음이 되는데 이것을 安東地方에서는 한 달림, 韓山地方에서는 한 곳이라고 한다.

2) 무명배의 방적과정

① 작업과정 : 씨앗기작업 → 솜타기작업 → 고치말기작업 → 실잣기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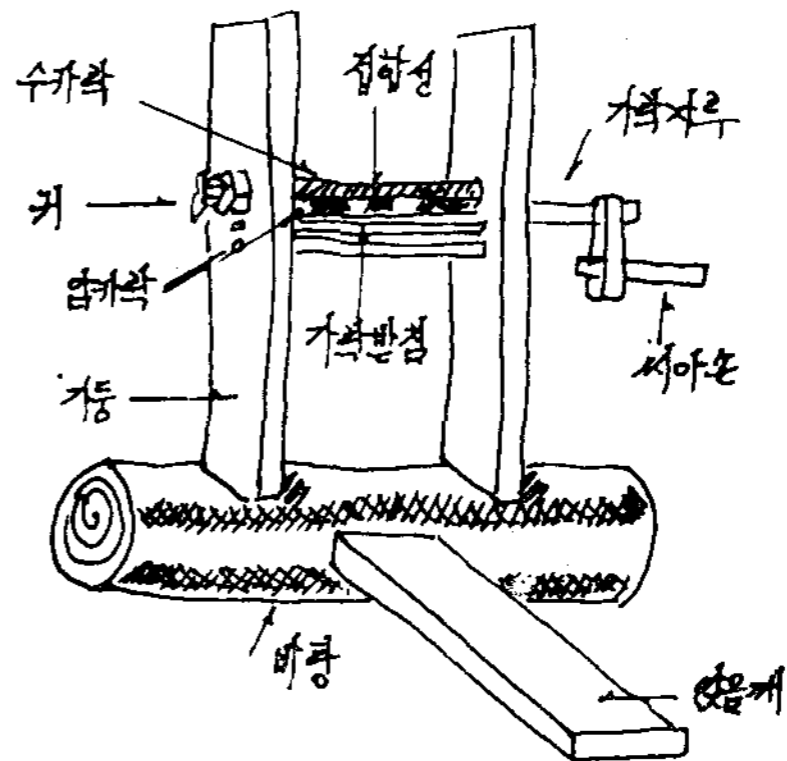
② 작업용구

작업과정	씨앗기작업	솜타기작업	고치말기작업	실잣기작업
작업용구	· 씨앗틀 (圖 4)	· 솜활(圖 5) · 칠손(圖 6)	· 말대(圖 7) · 말판(圖 7) · 다래(圖 6)	· 물레 (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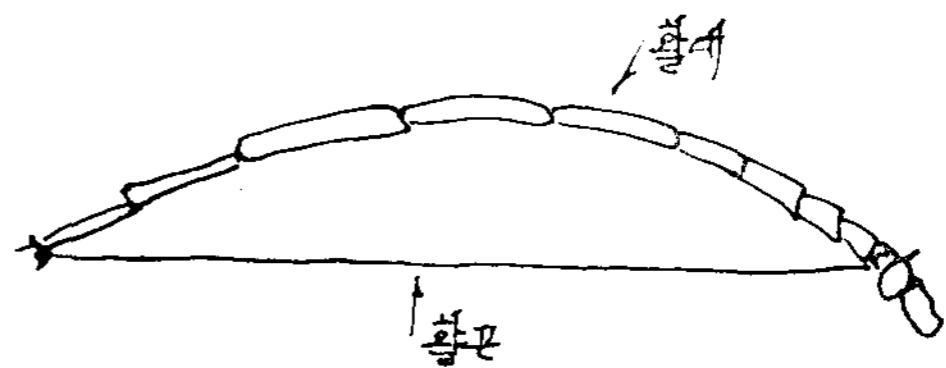
③ 작업 개관

가) 씨앗기(揀綿)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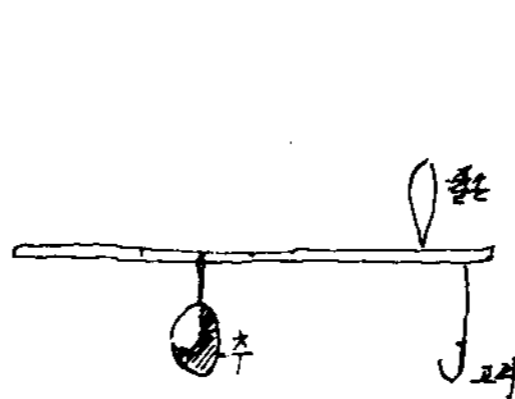
작업자는 앓을깨에 앓아서 오른손으로 씨아손(꼭지마리 : 羅州地方)을 右回轉한다. 꼭지마리에 投下된 動力은 수카락에 傳達되고 수카락에 달린 가락귀(톱니바퀴 = Tooth-wheels 役)는 암카락의 귀를 감고 암수 두 가락은 接合綿을 中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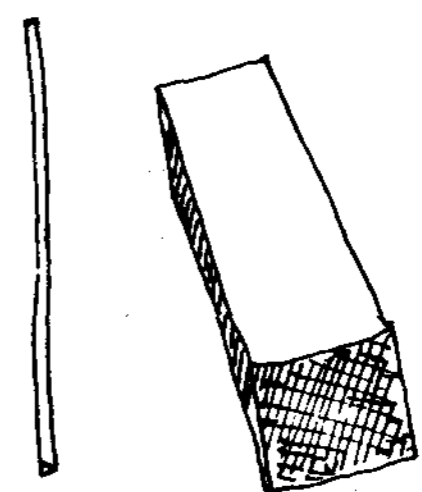
[圖 4] 씨앗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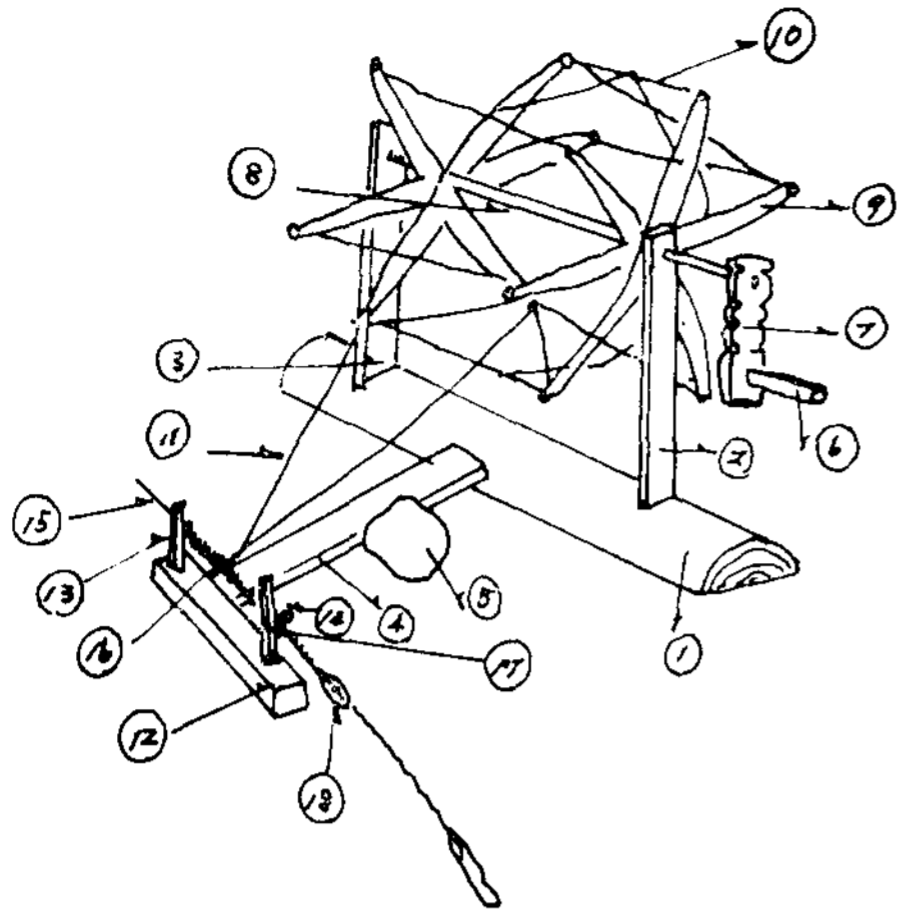
[圖 5] 솜활



[圖 6] 다래





[圖 7] 말대와 말판



- ① 물레바탕 ② 앞 기둥 ③ 뒷 기둥 ④ 가룻대 ⑤ 물렛돌 ⑥ 손잡이 ⑦ 꼭지마리 ⑧ 굴뚝 ⑨ 물레살 (輪) ⑩ 동줄 ⑪ 물레줄 ⑫ 피머리 바탕 ⑬ 피머리 기둥 ⑭ 고동 : (고리)
- ⑮ 가락 : 물레에 달린 유일한 쇠붙이
- ⑯ 가락토리 : 가락 중앙부에 고정되어 있음.
- ⑰ 가락 맺임이 : 가락토리 下部에 실을 단단히 감아서 고정시켜 둔 것
- ⑱ 가락웃(갈고자리) ⑲ 기름 접시

[圖 8] 물레

로 相互 反對方向으로 回轉하게 된다. 이렇게 回轉하고 있는 가락의 接合綿에 왼손으로 生綿을 잡아다 물리면 솜은 가락 사이로 빠져 뒤로 나가고 棉實은 보기 좋게 앞쪽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런데 작업 중에는 가락귀의 磨擦로 인하여 끼역끼역하는 소리가 요란스레 나므로 가끔 蜜蠟 등을 칠해 潤活油를 代行한다. 그리고 두 씨야 가락의 接合綿은 쇠기로 操縱하지만 長期間 使用하면 가락몸통이 미

 끝미끝해지고 가락귀가 닳게 되어 작업이 不可能하므로 쇠기거두와 쇠기줄을 사용하여 이를

 矯正한다(圖 9 참조).

[圖 9] 거두와 줄

나) 솜타기(打綿)작업

縲綿 脫核된 솜을 이른 새벽에 地面에 깔면서 막대로 두들겨서 알맞게 녹인 후 작업자는 솜활을 이용하여 打綿作業을 한다.

즉 작업자는 바른손에 활을 잡고 활끈 주위에 솜이 닿도록 하여 왼손에 잡은 쥘손으로 활끈을

걸어 당긴다. 이때 걸어 당긴 끈은 規則적으로 振動을 일으키며 核皮 등을 깨끗이 떨어뜨리고 솜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다. 이와 같이 피어오른 솜을 때어서 한 곳에 모으고 同一한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다) 고치말기(Rubbing)작업

작업자는 바른손에 잡은 말대의 끝과 왼손으로 打綿된 솜을 알맞게 때어다가 말판 위에 가로세로 각각 5cm, 20cm 정도로 잘라 놓고 말대로 그 中央部를 누르며 왼손바닥으로 이를 가볍게 밖으로 내밀면서 3~4회 비빈다. 그러므로 말대는 右回轉되면서 고치가 만들어진다.

작업자는 이와 같이 하여 만든 고치를 정하게 말대로부터 뽑아서 한 곳에 모우는데 네 꾸리 다래(一疋分の 고치의 量) 또는 다섯 꾸리 다래로 그 무게를 달아서 한 묶음씩 만든다. 각 묶음을 한 달림이라고 한다.

라) 실짓기(紡績=Spinning)작업

㉑ 작업자는 물레 正面에 安坐하여 바른손으로 물레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고치의 끝을 잡는다.

㉒ 바른손으로 물레 손을 右回轉하면 그 동작은 꼭지마리, 굴뚝으로 傳力되어 물레가 右回轉한다. 이때 동줄에 걸린 물레줄에 의해서 動力은 가락토리로 傳達되는데 물레가 한 바퀴 도는 사이에 가락은 100회 以上 右回轉하게 된다. 왜냐하면 물레바퀴(동줄) 圓周는 2m쯤 되는데 대해서 가락토리는 圓周가 2cm 미만이기 때문이다.

㉓ 가락이 급속히 회전하면서 고치의 솜을 비틀어 꼬아 綿絲가 紡績되는데 이때, 왼손으로 잡아 당기는 힘과 그 손가락 끝의 纖細한 작용으로 알맞은 굵기의 실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작업자의 신비스러운 靈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㉔ 바른손으로 손잡이를 5~6회 右回轉시키는 사이에 실은 50~60cm쯤 뽑혀진다. 이때 작업자는 바른손의 동작은 中止, 손잡이를 逆으로 약간 돌려 가락 끝에 걸린 실을 가락(멩이 : 羅州地方)의 中央部까지 푸는 것과 동시에 왼손을 높이 추켜들고 바른손으로 서서히 물레를 右回轉시키면서 왼손으로 실을 멩이에 감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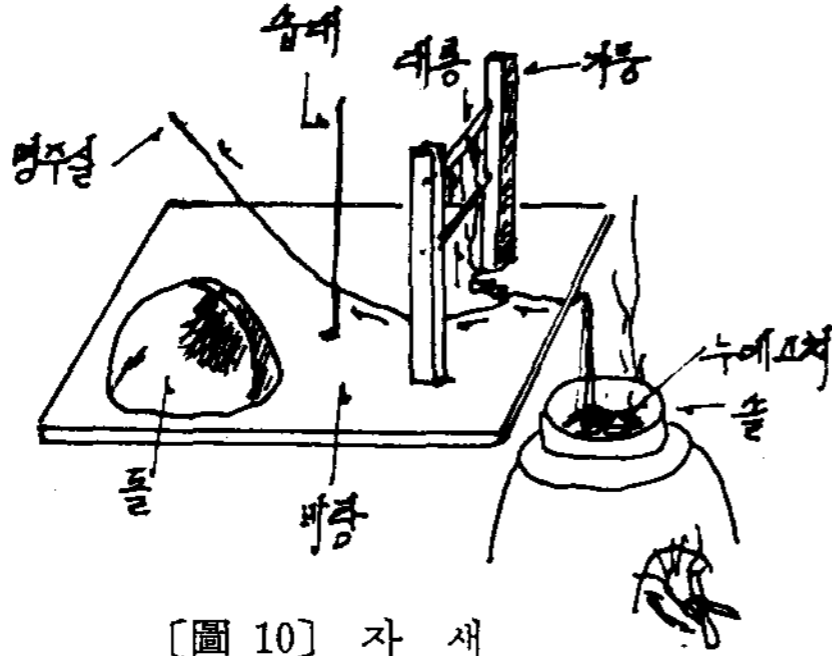
3) 명주의 製絲過程

명주의 製絲過程은 그 工程이라든지 작업용구가 다른 직물에 비하여 간단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① 작업용구 : 명주물레, 자새 (縲絲轆轤) (圖 10), 작은 솥, 젓가락

② 작업 개관

㉠ 명주물레 (星州地方에서는 왕칭이라 함)는 작업자의 왼편에 두고, 直徑 25cm쯤 되는 솥을 바른편 낮은 곳에 걸어 두고 솥 가까이 왕칭이 쪽으로 자새를 장치한다.



[圖 10] 자 새

먼저 直徑 25cm쯤 되는 솥에 많은 물을 넣고 그 水面이 半쯤 찰만큼 누에고치를 넣어 물이 끓을 정도로 加熱한다.

㉡ 이때 작업자는 바른 손에 잡은 젓가락으로 끓는 물에 떠 있는 누에고치를 휘저으면서 여러 고치의 실 끝을 찾아내어 왼손에 모아 쥘다.

㉢ 작업자는 두 손을 사용해 그 모아쥘 실을 먼저 쇠고리를 꿰뚫어서 윗대롱과 아랫대롱 사이를 8字型으로 지나가게 한다. 그리하여 다시 쇠고리로 집중되는 실을 8字型을 지나온 실로 4~5차례 휘감아서 왼편에 있는 왕칭이에다 묶는다(圖 10의 →표 참조).

㉣ 본격적인 제사작업은 이로써 시작된다. 즉 작업자는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힘껏 左回轉시키며 바른손에 잡은 젓가락으로는 쇠고리에 엉겨 붙는 누에고치를 떼어내고, 번데기 찌꺼기 등을 쫓아내기도 한다. 그리고 바른손으로는 고치를 솥에 投入하기도 하고 火力도 調節하는데 작업자의 주의를 주로 솥과 자새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 이와 같이 하여 一疋分の 누에고치 중約 1/10쯤이 製絲되었을 때 위의 작업을 중지하고 앞서 말한 노끈으로 묶은 왕칭이 손을 조심스럽게 풀면 왕칭이 주위에 휘감긴 縲絲의 압력으로 탁하는 소리를 내며 그것은 옆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깨끗한 한 타래의 生絲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을 星州地方에서는 실 한 젓이라고 하고 있다.

2. 織布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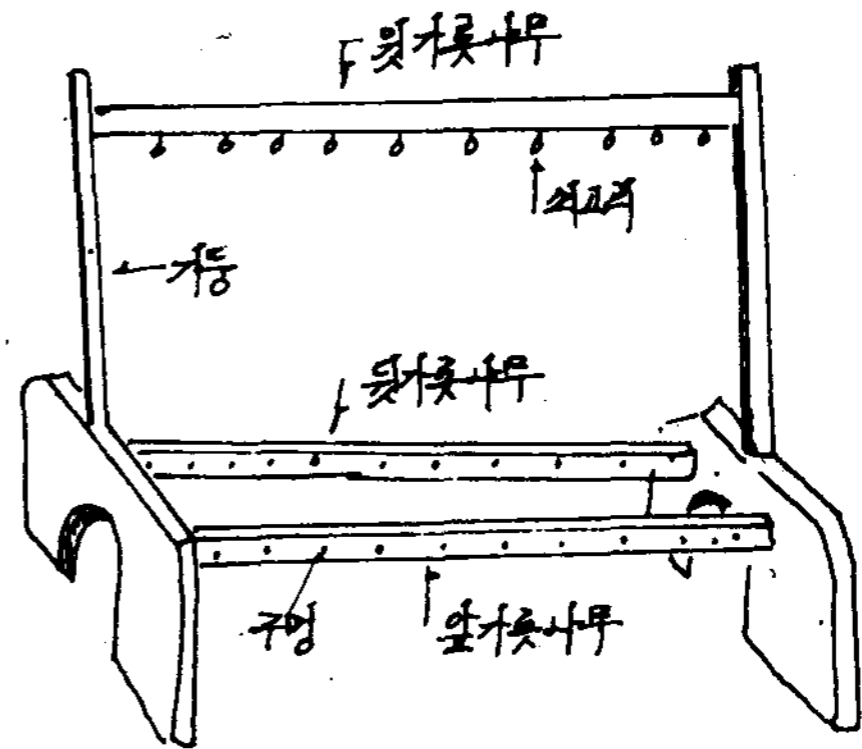
각종 직물의 직포과정은 특별한 例를 제외하고는 어느 것이나 베날기(整經), 배매기(加糊), 꾸러감기(緯卷) 및 베짜기(織布) 등 4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 각 공정에 따른 용구와 작업개관에 관해 記述하기로 한다. 그런데 무명베의 경우는 베날기 과정에 앞서서 베뽑기가 있고, 명주의 경우에는 실네리기(解絲)작업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해 살펴본다.

1) 무명베의 베뽑기작업

① 작업용구 : 날상이(뽑는 틀, 圖 11), 솥대, 광주리

② 작업 개관

㉠ 작업자는 10개의 솥대(날꼬챙이)에 각각 실뿤이를 꿰어 날상이 바탕 앞뒤 가룻나무에 끼우고 각 뿤이의 실 끝을 하나씩 그 上部에 장치된 철사고리에 꿰어서 각 실 끝(10오라기)을 바른손으로 모아 잡는다.



[圖 11] 날상이

② 바른손은 모아 잡는 작업을 맡고 왼손으로는 잡아 당겨 작업자 왼편에 있는 광주리에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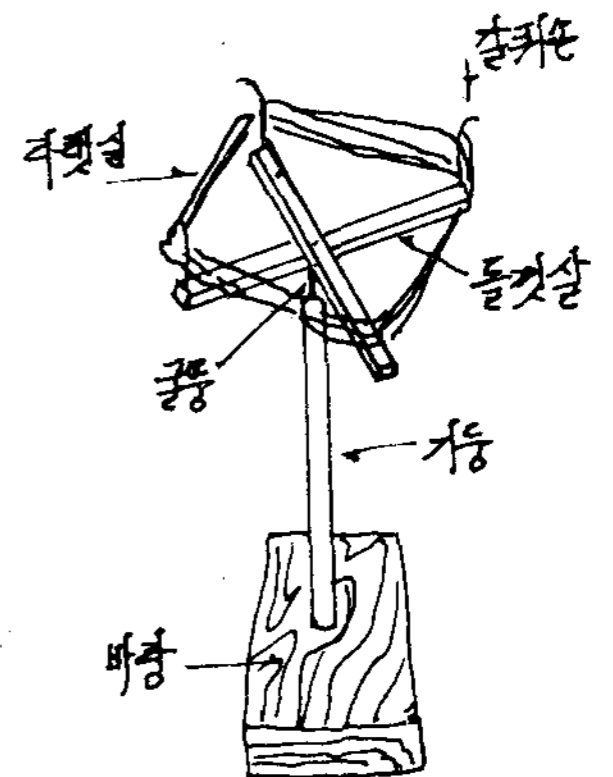
2) 명주의 解絲作業

① 작업용구

돌궂(撥車, 圖 12), 물레

② 작업 개관

돌궂(돌궂, 星州地方)에 걸린 타렛실을 물레가락에 꿰은 대롱에 감기 위하여 왼손으로는 대롱 上部에서 풀려 감기는 실을 操縱하고 바른손



[圖 12] 돌 궂

라) 베 짜기작업

작업자는 베틀 원채를 織布場에 설치하여 놓고 날실이 감긴 도투마리를 베틀 위에 올려 놓는다. 그리고 앞 사침대가 끼워져 있는 날실 사이에 버경을 밀어 넣고 버경이 아랫쪽에 있는 날실을 한올 한올씩 잉아걸이를 사용하여 잉앗실을 건다. 이어서 작업자는 앞을깨에 올라 앉으면서 개톱대를 말코에 끌어 맨 다음, 부티를 작업자의 허리에 돌려 말코에 맨다. 그리하여 작업자는 바디에 바디집을 입혀 마구리에 끼우고, 바른 다리로는 베틀신을 신고, 한 손에 바디집, 다른 한 손에는 꾸리가 들어 있는 북을 잡으면 본격적인 織布作業이 시작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직포작업은 다음과 같다.

㉠ 작업장비를 완료한 직포공이 앞을깨에 앉아서 바른발을 잡아 당기면 베틀신으로부터 그動力이 즉각 잉앗실에까지 이르러 버경이 아랫쪽에 있던 날실은 바짝 걸려 올라 오게 되며, 날실 사이로 북이 드나들만한 구멍이 생기게 된다.

㉡ 직포공은 바른손에 잡고 있던 북을 재빨리 날실 사이의 구멍에 밀어 넣어버리고 왼손으로는 그 북을 받아서 왼손으로 운반하여 북구멍에서 빠져 나온 씨실을 팽팽하게 하는 동시에 바른손으로는 바디집을 잡아당겨 알맞게 치고는 그 反動作用을 이용하여 다시 바디집을 내밀어 놓는다. 이때 바른 다리와 왼손으로는 다음 동작을 준비한다.

㉢ 다음 바른 발을 앞으로 내밀어 윗쪽으로 걸러 올라간 날실을 아랫쪽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에서 행하던 동작과 逆行되는 일련의 동작을 취함으로써 두 손과 각 용구는 처음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의 동작을 통하여 두 올의 씨실이 날실과 교차되어 피륙이 짜여지는 것이다.

VI. 結 語

1. 棉花는 文益漸이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棉花를 木棉이라 했다. 또 木棉을 草綿이라고 한다. 草綿은 해마다 심는 것에 기인된 것이며 木綿으로 질이 좋은 것을 吉貝라고 했다. 이것은 織貝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織貝는 자개 무늬를 놓아서 짠 비단이며 이것을 貝錦이라고 했다.

「南史」에는 실을처럼 생긴 풀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의 이름을 白疊子라 하며, 이것으로 베를 짠다고 하여 중국에서 이를 白疊子라 했다. 즉 실을처럼 생긴 풀 열매는 棉花인 듯하여 木綿을 白疊子라 한 듯하다.

白疊子에 다른 털을 보태서 가는 모직을 만든다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은 혼방직 또는 교직으로 생각된다. 또 「史記」에 毳布는 백첩자라고도 하여 탐포도 木綿을 가리키는 것인 듯하다.

桐은 櫨과 통하고 일명 斑枝花라 하며 이것은 즉 木綿이다. 또 櫨葉布도 목면을 가리킨 것이다.

2. 삼국시대의 직물생산은 선사시대의 원시적 양상을 탈피하여 紡錘車를 이용한 인위적인 섬유 생산으로 전환하여 갔다.

삼국시대부터 고급 비단이 있었고, 또 唐에 가증한 일까지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된 것인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시대에는 명주 모시는 직포하였으나 목면은 생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무명이라 한 것은 布織物을 가리켰다.

목면은 고려말에 文益漸이 들여온 후 온 국민이 다 재배하여 직조하여 衣料로 썼다. 조선초에는 직조기술을 중국에 의존하였으며, 棉花 재배와 綿布 생산하는 풍속이 되도록 권장하였다. 한때는 조정에서 錢法을 시행하지 않고 무명으로 화폐를 삼기도 했는데, 35자가 한 필이고 50필이 한 동이다.

양잠은 삼국시대부터 오래지만 조선 초기에 광범위하게 전파시켰다. 그 실례를 보면 太宗 11년에 紡織 시설을 闕內에 갖추어 놓고 외국 수입을 금했다. 또 成宗 8년에는 後妃의 親蠶禮가 있었고 또 種桑法을 만들어 매 戶마다 뽕을 가꾸게 하였다. 端宗 2년에는 각 읍에 都會蠶室을 두어 양잠을 시켰고, 御製耕織圖 등 여러가지로 경잠·경직을 장려하였다. 한편 錦纈縵子의 사치가 범람하여 國末에는 이를 禁制節目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麻織物은 衣料生産의 대표적이며 서민적이고 그 기술은 이미 신라시대에 크게 발달하여 極細布가 직조되었다.

苧布는 조선 衣類 생산 중에서 極貴한 것으로 주로 상류계급에서 수요되었으며, 着色하여 官服에도 사용하였다.

3. 木綿은 고려 공민왕 9年 文益漸의 元나라에 使臣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棉花 밭에서 3송이를 芻뚜경 속에 간수해 가지고 와서 전국에 전파하여 온 국민의 衣類로 생산 着服하였다.

4. 삼국시대에는 紡錘車에 의한 원시적인 織機였으나 점차 발달하여 조선조에 와서는 씨앗틀, 물레, 베틀 등의 手織機가 등장하여 현재도 그 유물을 볼 수 있다.

방직의 현황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가내 수공업의 위치였으며, 더우기 여성들만의 분야였으므로 기능과 생산에 크게 발전을 보지 못했고 아울러 문헌자료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희귀하여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점을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기로 하겠다.

참 고 문 헌

1. 柳得恭, 京都雜誌, 大洋書籍, 서울, 1972.
2. 高麗史, 東亞大學校古典研究室(編)
3. 권병탁, “李朝 末期의 농촌직물 수공업 연구”, 경복대학교, 1970.
4.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73.
5. 김용숙, “李朝 後期 妃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아세아여성연구, 제 5집, 1966
6. 大東野乘.
7. 리은창, 한국복식의 역사(고대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8. 金富軾, 三國史記.
9. 釋一然, 三國遺事.
10. 석주선, 한국복식사, 寶晉齋, 1971.
11. 宣和奉使 高麗圖經
12. 星湖僿說.
13. 星湖先生文集
14.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5.
15. 이여성, 조선복식고, 백양당.
16.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1955.
17. 李萬運·朴容大, 增補文獻備考·서울, 古典刊行會影印本. 1955.
18. 靑莊館全書.
19. 李晬光, 芝峰類說,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大正四年(1915)
20. 北塞記略, 孔州風土記.